

도 '바이오산업' 육성 본격 행보

제1회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 개최 강점·잠재력 활용 선점 대응... 융복합사업으로 확대 필요

전북도가 바이오산업을 전북의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바이오산업을 전북의 미래 산업으로 본격화하기 위해 제1회 전라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바이오산업 주요 정책 결정·조정과 자문을 위한 분위원회와 정책개발과 사업 발굴 기획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3개 분과위원회(바이오소재, 농생명, 라이프케어)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 구성 이후 첫 번째 개최되는 회의로 전북의 바이오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해 '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 운영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이에 이번 회의는 도 바이오산업 현황 및 육성계획과 산·학·연 등 각 분야별 위촉 위원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통해 전북의 바이오산업의 정책방향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인 대전대학교 현병환 교수는 "세계 각국이 바이오분야를 국가 최우선 투자분야로 집중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계 시장규모는 지난2013년 330조원(2,620억달러)에서 오는 2020년 635조원(6,296억달러)으로 성장이 예상되



28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제1회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 출범식에 송하진 도지사와 이형규 정무부지사를 비롯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산학연 등 37명의 전문가가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고, OECD는 2030년경 '바이오경제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위원회는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도 지난 2014년 총 7조 5,935억원에서 2020년 16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가 전망되는 등 바이오산업은 최근 5년(2010~2014년) 동안 연평균 7% 성장률로 제조업 2.8%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바이오분야를 전북경제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소재·식품과 바이오화학 등 전북의 차별화된 강점과 잠재력을 활용한 선점 대응을 논의했다. 특히 단순가공 농식품을 고부가가치 첨단 농생명산업으로 고도화를 위해서는 바이오 기반 융복합산업으로 영

역 확대가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도 관계자는 "전북의 차별화된 바이오산업 육성계획을 마련 중으로 연말에 개최되는 제2차 위원회에서 확정하고,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을 총괄한 전담조직 신설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도, 휴가철 혈액 수급 공백 '공직자 사랑의 헌혈' 로 메워

전북도의 휴가철 '사랑의 헌혈'이 내달 1일부터 23일까지 남원시를 시작으로 14개 시·군이 동참하게 된다. 하절기는 도내 헌혈의 약 60%를 차지하는 학생들의 방학기간과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혈액수급이 어려운 시기다.

현재 전북 혈액 보유량은 A형 3.6일분, B형 5.0일분, O형 3.9일분, AB형 4.9일분으로 적정보유량인 5일을 유지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공조해 도내 공공기관 직원들과 '사랑의 헌혈'에 동참키로 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혈액수요량이 증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카바이러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출현 등으로 혈액수급의 차질이 예상된다"며 "공직자들의 헌혈 참여가 환우들에게는 짐통 불발되어 속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6급 이상 여성관리자 20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

지방 여성공무원 인사통계... 부서 여성 비율 10년 전 21.3%에서 36.5%까지 높아져

지난해 6급 이상 여성공무원 수는 2만3306명으로 20년 전과 비교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28일 공개한 '지방 여성공무원의 주요 인사통계'에 따르면 6급 이상 공무원도 1995년 2287명(19.6%)에서 지난해 2만3306명(33.7%)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도 같은 기간 604명에서 2535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2002년부터 추진해온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에 따라 꾸준히 여성관리자가 증가하면서 양적인 확대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도약이 성황했다고 자평했다.

또 이들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면서 고위직 비율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5급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서울

시 여성 관리자가 20.3%로 평균인 11.6%보다 높았고 대전(14.2%), 부산(14.0%)이 뒤를 이었다.

또 지자체 내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등의 부서의 여성 비율이 10년 전 21.3%에서 36.5%까지 높아졌다.

특히 광주(43.9%), 서울(42.9%), 부산(41.9%) 등 대도시에서는 기획, 예산 등 부서의 평균 여성 공무원 비율이 40%를 웃돌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방직을 포함한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자 수는 총 8149명으로 10년 전 1192명에 비해 약 8배나 늘었다.

육아휴직 여성공무원은 2011년 698명, 2012년 7934명, 2013년 8691명, 2014년 7939명, 지난해 814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육아휴직에 따른 지난해 업무 대체

자 총원율도 9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 전 59곳이었던 청사 내 보육시설도 지난해 141곳으로 확충됐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여성공무원의 변화에 맞추어 여성관리자 임용목표를 현실에 맞게 확대·조정하고, 저출산 해소와 일과 가정의 양립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과 함께 이러한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 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매년 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를 기관 누리집 및 통계청을 통해 전자파일로 공개하고, 지표별로 시도 통합·비교 자료를 분석해 내고장알리미(www.laie.go.kr) 등에 공개한다.

/박용주 기자

'합헌' 김영란법 남은 절차는?

법제처 법률 심사 등 거쳐 9월28일 본격 시행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현재 결정이 나온 만큼, 급명간 법제처에 법률 심사를 접수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오늘 안 접수는 어려워 보인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 법률 심사는 상위법이나 관련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단계로, 통상 20~30일 정도 소요된다. 현재의 합헌 결정으로 법제처 법률 심사가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줄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서 반발하고 있어 심사 일정 등이 다소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현재 결정 직후 '법제처의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상정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심사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입법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이견이 있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기구다.

법제처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접수를 하는 대로 법률 심사 단계가 진행될 것"이라며 "일부 부처

에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식 요청이 오면 이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제처에서의 법률 심사가 끝나면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지게 된다. 이후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을 고려하면 법제처 법률 심사는 다음달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사이 권익위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 강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언론 등을 통한 대(對)국민 홍보 활동도 본격화할 계획이며, 다음달 중으로 구체적인 적용 사례가 담긴 Q&A 자료를 추가로 게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2일 김영란법 해설집을 홈페이지에 올린 바 있다.

이와 관련, 광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오후 현재 결정 직후 브리핑을 열고 "현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청탁금지법의 시행 결정 직후 '법제처의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상정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심사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입법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이견이 있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기구다."

법제처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접수를 하는 대로 법률 심사 단계가 진행될 것"이라며 "일부 부처에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식 요청이 오면 이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용주 기자

상반기 해양오염 사고 기름유출량 전년비 61% 감소

올 상반기 해양오염 사고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유출량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양오염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 감소한 117건으로 집계됐다.

해양오염 사고에 따른 기름 유출량은 143kl로 지난해 상반기 363kl에 비해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해양오염사고의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전체 사고의 약 42%인 49건으로 기록됐고, 침몰·좌초 등과 같은 해난 39건, 파손 19건, 고의 6건 순으로 많았다.

사고 해역별로는 남해가 42건(111kl)으로 유조선 등 선박 통항량이 많은 남해해역에서 해양오염사고와 유출량이 많았다. 뒤이어 서해 33건(4

kl), 중부 19건(20kl), 동해 13건(5kl), 제주 10건(3kl)순으로 나타났다.

유출량이 대폭 감소한 것은 부주의에 의한 사고 감축 목표제 시행과 취약선박·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 때문인 것으로 안전처는 보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부산 영도 기름유출 사고 당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서 사고 초반 유류이적 등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추가유출을 방지한 것이 유출량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안전처는 전했다.

이승환 국민안전처 기동방재과장은 "부주의 사고에 대해 지속적 관리와 취약 선박 등에 대한 예방순찰과 점검활동을 하는 등 유조선과 같은 고위험선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여름방학스피치 특강모집
스피치·웅변·면접·웃음치료·시낭송

-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강사
- 한국웅변인협회 전직회장
- 전북 최초 스피치 면접과목 강의를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십 경력 41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세운말,말,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강의특징: ①41년의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주2회교육
 ②각종대회 출전지도(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2회 및 최우수연사 배움)
 ③김양욱의 전문강사가 특별강의 함
 ④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⑤그룹강의는 매주 2회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사)한국웅변인협회, (사)한국웅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스피치&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면접 아카데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